

## 04

# 뭉치면 흥(興)하고 흩어지면 망(亡)한다

## 서산시 농촌마을종합개발\_팔봉산권역 종합개발사업

충남 서산에는 재미난 전설이 전해져 오는 산이 하나 있다. 8개의 봉우리가 팔짱 낀 8형제처럼 올망졸망 이어져 있다하여 팔봉산이란 불리는 산이 바로 그것. 원래는 9개 봉우리인데, 봉우리 한 개는 너무 작다하여 제외됐다고 한다. 봉우리면서 봉우리 대접을 받지 못했으니 서러웠을 법도 하다. 때문에 매년 12월이면 제외된 작은 봉우리는 자신만 제외시켰다고 하여 구슬피운다고 한다. 작은 봉우리 사정이야 어찌됐든 팔봉산은 전국 100대 명산으로 꼽히며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하며 사시사철 싱싱한 농수산물을 잉태한다. 그 중에서도 팔봉산의 맑은 정기와 서해의 바닷바람을 맞고 자라 맛과 영양이 최고인 팔봉산 감자는 품질 역시 전국 최고를 자랑한다. 여기에 맞추어 될 만한 농수산물이 있다면 바로 마늘이다. 서산육쪽마늘이란 브랜드를 입는 순간, 맛과 품질에 대한 신뢰감을 보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팔봉산권역 주민들에게 있어 감자와 마늘은 그야말로 효자 상품이다. 필사적으로 키우고 보호해야 할 자식같은 존재다. 그래서 이곳 주민들은 감자와 마늘 등 지역 농산물의 출하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저온 저장고를 설치하는 소득 사업을 계획했다. 소득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20%를 자부담해야 하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반대의 목소리도 컸다. 우열곡절 끝에 저온저장고와 가공시설이 만들어졌다. 그 후 일년, 가능성이 보였다. 2년이 지나자 확신이 생겼다. 3년이 지난 지금, 팔봉산권역 전체의 희망이자 비전이 되었다.



팔봉산 전경

## 부지는 없고, 자부담은 부담되고

충남 서산시가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2011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종합평가에서 전국 3위를 기록하면서, 2008년 중간평가에 이어 연속 2년 우수권역으로 선정됐다. 특히, 팔봉산권역은 1·2단계 핵심사업인 저온저장고 운영으로 2억여 원의 소득을 창출하고 2,400여명의 고용창출효과까지 얻은 점이 높게 평가되면서 우수권역발전기금 1,000만원을 받기까지 했다.

지금이야 저온저장고 시설이 팔봉산권역에 여러 이득을 가져오면서 대우받는 사업이 되었지만 2006년 사업 초창기 때만 해도 이를 둘러싼 잡음이 많았다. 일단 소득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금전적 협조가 필요한데, 이것이 쉬울 리 만무했다. 먹고 살기도 바쁜 마당에 전망도 확실치 않은 사업에 금전적 지원을 할 여력이 그들에게는 없었다. 하지만 또 외면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마늘하면, 서산육쪽마늘이 최고인데, 번번이 홍수출하를 하게 되면서 높은 인지도와 노력에 비해

수취가격이 낮아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저온저장고를 통해 연중 출하할 수 있는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그러나 자부담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가 버티고 있었다. 바로 저온저장고 시설을 지을 마땅한 부지조차 없다는 점이었다.



서산쪽마늘

## 여기 땅 있소이다

저온저장고를 지을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밭을 동동 구르고 있을 당시, 턱하니 자신 소유의 땅을 내놓은 이가 있었다. 바로 조기상 추진위원장이었다. 그가 내놓은 땅은 자그마치 2,700평. 언제든 시·군의 부지 매입이 가능한 순간이 오면 팔겠다는 말과 함께 자신의 부지를 장기임대로 내놓았다. 권역을 위한 희생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 조 추진위원장은 어렵게 재배한 농산물을 마땅히 보관할 때가 없어 그냥 버려지거나 홍수출하로 가격 경쟁에서 밀리게 되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이와 함께 확신이 있었다. 농산물 가공시대가 열린 만큼, 저온저장고를 활용해 마늘 등 지역 특산물을 가공해서 판매하면 분명히 승산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었다. 부지 확보와 함께 조 추진위원장을 구심점으로 조직이 구성되면서 저온저장고 사업은 활기를 띠는 듯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 반응은 냉담했다. 조 추진위원장은 직접 면 단위 이장들을 만나 본 사업의 필요성과 장래성에 대해 설명하고 또 설명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사업부터 추진하냐고 타박하는 사람도 있었다. 다른 사업을 제안하는 사람도 있었다. 사람들 입장이 워낙 부정적이다보니 희망적인 상황보다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조 추진위원장은 끈질기게 밀어 붙였다. 본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



조기상 추진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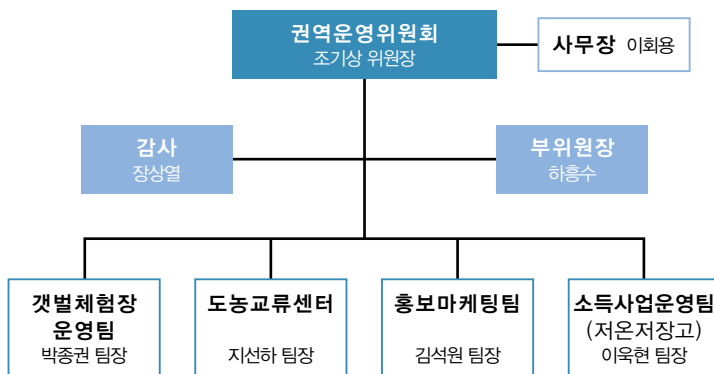
사람들과 회의하고 있는 모습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전단지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돌리기도 했다. 사람들이 점차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급기야 저온저장고의 비전을 읽어 내는 사람들도 생겼다. 그 시작은 마을의 노인들이었다.

## 마을 개발의 원동력은 세대 간의 의기투합

양길리, 덕송리, 호리 등 3개 법정리를 포함하며 총 459가구가 살아가는 팔봉산권역은 타 지역에 비해 40~50대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그만큼 사업을 이끌어 갈만한 재목도 많다는 이야기. 하지만 재정적 지원 사각없이 시작되는 사업이 어디 있으랴! 특히 저온저장고와 같은 소득 사업은 마을 주민의 자금적 지원 없이는 그 첫 단추도 꿰 수 없는 일이었다. 이때 덕송리 마을 노인회에서 700만 원을 팔봉산권역농조합법인에 선행 출자했다. 농한기를 이용하여 왕골돛자리를 짜서 판매해 얻은 수익금을 내놓은 것이었다. 노인회의 출선수범은

### | 팔봉산권역 조직 구성 |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자극과 모범이 되었다. 참여 가구가 조금씩 늘어가기 시작했다. 어느덧 출자 가구만 80가구. 이로써 모여진 자부담비만 5억 7,500만원이었다. 농촌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일이 이곳 팔봉산권역에서 이뤄졌다.

주민들은 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단합하기 시작했다. 노인 세대들이 경제적 지원 사격에 나섰다면, 젊은 세대들은 아이디어를 내며 사업을 발전시키는데 총력을 다했다. 세대의 화합은 공동체 의식을 발달시켰고 저온저장고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여기에는 조기상 추진위원장의 역할이 또 한 몫을 했다. 사업의 전 과정을 회의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는가 하면, 주민교육 및 리더교육 등을 통해 주민 모두가 단합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 시행착오는 성공의 통과의례

팔봉산권역의 주요 사업으로 총 28억 원이 투입된 저온저장고 사업은, 저온저장고 981㎡, 작업장 348㎡, 건조장 186㎡로 규모면에 있어 전국 최대였다. 주민들의 원대한 포부와 꿈에 비례하는 크기였다. 자칫 사업이 잘못될 경우, 주민들의 상실감도 클 터였다. 저온저장고에는 팔봉산권역 지역 특산물인 감자, 마늘, 양파 등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마을의 미래도 함께 저장된 것이었다.

저온저장고 사업의 관건은 온도 조절이었다. 농산물은 온도가 높을



주민 교육 및 리더교육

### | 예산집행실적 |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집행액			미집행액			집행율 (B/A)
계	보조	자부담	계(B)	보조	자부담	계(C)	보조	자부담	
7,864	7,289	575	7,864	7,289	575	-	-	-	100



(위)저온저장고 전경

(아래)저장고에 보관중인 마늘과 양파

경우 싹이 나고, 온도가 낮을 경우는 얼어버리기 때문에 온도 관리가 중요했다. 하지만 사업 초반 전문적인 지식도, 기술도 없다보니 꺾어 썩어나가고, 얼어 터져 나가는 농산물이 태반이었다. 점차 손해도 고 민도 커져만 갔다. 전문가를 영입해서 관리해야 하는데, 관리비도 만 만치 않았고 지속적으로 상주할 전문 인력을 구하는 일도 만만치 않 았다. 그 결과, 장기적인 사업 전략 차원에서, 주민들의 자기역량강 화 차원에서 자체 학습을 통해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데 의견 이 모아졌다. 저온저장고로서는 오랜 전통과 노하우가 있는 곳에 주 민들이 상주하며 전문기술과 지식을 연마하게 되었다. 팔봉산권역의 미래가 제 온도를 유지하기 시작했다.

## 트렌드를 읽는 힘=시장 경쟁력

저온저장고의 설치는 주로 마늘 저장을 위주로, 출하시기 조절을 통 해 1.5배 정도의 소득을 증가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농작물 을 신선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시장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사업이 절실히 필요했다. 마늘을 필 두로 가공산업 육성을 본격화하기 위해 깐 마늘 기계를 도입했다.

깐마늘 기계 한 대는 하루 4.5톤 정도의 마늘을 까내며 한 달 3,600 만원 정도의 소득을 냈다. 또, 깐 마늘을 세척하고 포장해야 하다보 니 일손을 필요로 했다. 상시고용만 3명, 매일 8명에서 10명 정도의 마을 주민들이 저온저장고로 출퇴근하기 시작했다. 저온저장고는 일 자리 창출 효과까지 나타내며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 팔봉산권 역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소득 사업에서 별다른 기대와 효과를 보지 못했던 다른 지역들이 팔봉산권역을 벤치마킹하겠다고 찾아오기 시 작했다.



현재 팔봉산권역 저온저장고에는 1,200톤 규모의 농산물이 저장되고 있으며 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마늘과 감자 외 양파도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 또한 농산물 유통구조가 생산자에서 소비자 구매 편의로 바뀌어 가고 있는 세태에 따라, 팔봉산권역도 이에 발맞출 태세를 갖추고 있다. 현재는 마늘만 까고 있지만 앞으로 양파로까지 확대해 고품질의 농산물을 소포장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것이다. 한편, 서산의 자랑이자 마늘계의 명품으로 통하는 서산육쪽마늘을 활용한 흑마늘 사업도 추진·계획중에 있다.

## 시설 간의 협력적 경영으로 시너지 창출

2006년 7월 기본 계획을 승인 받고 2011년 3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완료한 팔봉산권역은 저온저장고 사업이 가장 큰 성과를 거두면서 증축계획도 차근히 준비중에 있다. 이와 함께 도농교류센터와 갯벌 체험장의 활용도를 높이는데 눈을 돌려 그 방안을 모색중이다. 일단 팔봉산권역은 산과 바다 그리고 농촌의 들을 한 눈에 모두 담을



(위)저온저장고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래)기계에서 나오는 간마늘 포장

### | 권역발전지표 달성여부 |

주요지표	단위	2005현황 (1)	계획대비실적(2010)		비고
			목표(2)	실적(3)	
인구	명	1,234	1,264	1,276	
가구수	호	459	502	541	
농가소득	천원	23,409	37,659	45,000	
방문객수	명	300,500	394,430	470,727	
권역리더	명	8	16	32	
팔봉산 방문자수	명	150,000	393,788	409,274	





수 있는 흔치 않은 공간으로 등산객 방문이 잦은 곳이다. 또한 가로림만의 갯벌, 팔공산감자축제 등 천혜의 아름다운 경관을 뽐내며 다채로운 문화 축제 등이 펼쳐지면서 연간 15만 이상의 도시민이 방문하는 휴식공간이기도 하다. 때문에 주변 경관과 함께 농촌 체험을 잘 연계만 시키면 도농교류센터나 갯벌 체험장의 활성화도 어렵지 않을 터였다.

특히 도농교류센터의 경우는 저온저장고 만큼이나 기대감이 높은 곳이다. 도농교류센터 부지를 1단계 사업의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하여 2008년 2월까지 14필지, 8,412㎡(2,545평)를 2억 8,700만원(115천원/평)으로 취득한 결과, 현 시가 기준 3억 3,5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했던 곳이기 때문이다. 도농교류센터에는 현재 농산물판매장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주민쉼터와 족욕장, 주차장, 체육시설 등이 갖춰져 있다. 시설면에 있어서는 타 지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 하지만 완공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온저장고의 명성에는 한참 못 미치는 실정이다. 그래서 현재 족욕 시스템을 활용하여 심신이 지친 등산객을 유치한다거나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에 따라 접근도가 크게 향상되어 기업들이 왕래가 많다는 점을 이용, 기업 세미나 연계 방안 등도 고려중이다. 이 외에도 학교 교육 프로그램과 계절별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이곳의 이용도를 높이는데 힘쓰고 있다.

팔공산권역에 있어 도농교류센터의 이용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곧, 방문객이 많아져 지역의 농산물 판매의 급증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고, 이것은 곧 저온저장고의 활용도와 갯벌 이용도를 높인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래서 권역추진위원회는 저온저장고와 도농교류센터 및 갯벌 체험장의 유기적, 협력적 경영 방안에 대해 고민 또 고민하고 있다.

## 무한경쟁시대, 최고 자원은 역시 사람!

농촌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부녀화돼 가고 있으며 도시와의 소득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한다. 경제적 활력이 저하됐고 자생적 발전이 어렵다고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서산의 팔봉산권 역은 독특한 곳이다. 갈수록 권역의 인구 및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고, 지역 농작물을 활용해 소득의 향상과 고용의 창출 효과까지 누리고 있다.

이곳이 죽어가는 농촌이 아닌 생산적인 농촌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하다. 팔봉산권역은 산, 들, 바다를 모두 끼고 있는 지역인 만큼 자연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이를 활용한 사업 아이템 역시 뛰어나다. 하지만 제 아무리 훌륭한 연장을 갖고 있다 한들 목수가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면 무용지물이 아니던가! 이곳은 뛰어난 목수들이 있었다. 투명한 리더십으로 마을 주민들을 이끄는 추진위원장이 있었고, 추진위원장과 일심동체가 되어 어디든 함께 뛰어주는 사무장이 있었고, 자신의 쌈짓돈도 기꺼이 내놓는 마을 주민들이 있었다. “마을 사업은 단단히 마음먹고 가야 한다. 쉽게 생각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는 해냈다”며 “우리”란 말을 강조했던 조 추진위원장. 아마도 가장 훌륭한 자원은 사람임을, 그 훌륭한 자원을 갖춘 곳이 바로 팔봉산권역임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라.



(위)갯벌체험장  
(아래)도농교류센터